

광주송일고등학교

11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송일고등학교가 전국 제일의 사학 명문으로 우뚝 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최고 유명대학 진학률에서 호남 제일을 자랑하고 3만여명에 이르는 배출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 등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14년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아름다운 학교를 자랑하며 탁월한 실력으로 세기를 넘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최고의 미션스쿨 광주송일고를 소개한다.



광주송일고등학교가 신앙과 실력을 앞세워 한국 최고의 미션스쿨로 거듭나고 있다. 인성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면서 미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최근 5년간 호남 제일의 서울 최고 유명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 제일의 사학 명문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광주송일고 제공)

신앙·실력 앞세운 한국 최고 미션스쿨 '우뚝'

광주송일고등학교는 1907년 3월5일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한국명 배유지) 목사가 '송일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 때는 교사 및 전교생이 선봉이 돼 활동하다가 수십 명이 투옥됐으며, 투옥 중 옥사한 학생도 있었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됐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6년제 중학교로 복교과정을 가지면서 자주독립 애국하는 학교의 맥을 이어왔다.

이어 1993년 광주시 양림동에서 일곡동으로 이전했으며, 1998년 남녀공학으로 변경 후 2021년 70회 졸업식 기준으로, 총 졸업생이 2만6천777명에 이른다.

'송일의 자부심'은 교육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세계를 넘어 이 땅에서 명문고교의 이상과 가치를 새롭게 실현해가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입시결과는 서울대 23명, 연·고대 57명, 의·치·한의대 63명 합격으로 남녀공학의 한계를 넘어 광주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역사와 실력의 '송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앙을 통한 인성교육 전력

광주송일고등학교 아침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더불어 성실과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 가진 송일인이 되도록 신앙을 통한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이어오고 있는 광주송일고등학교의 매년 5월 '봉사 체험의 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대학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전교생들은 학교 주변 일곡지구 20여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들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와 학부모, 동문 선배, 지역대학들과 함께 식사대접, 위로 공연, 무료진료, 이미용봉사, 피부마사지, 돋보기 선물 등 다채로운 섬김의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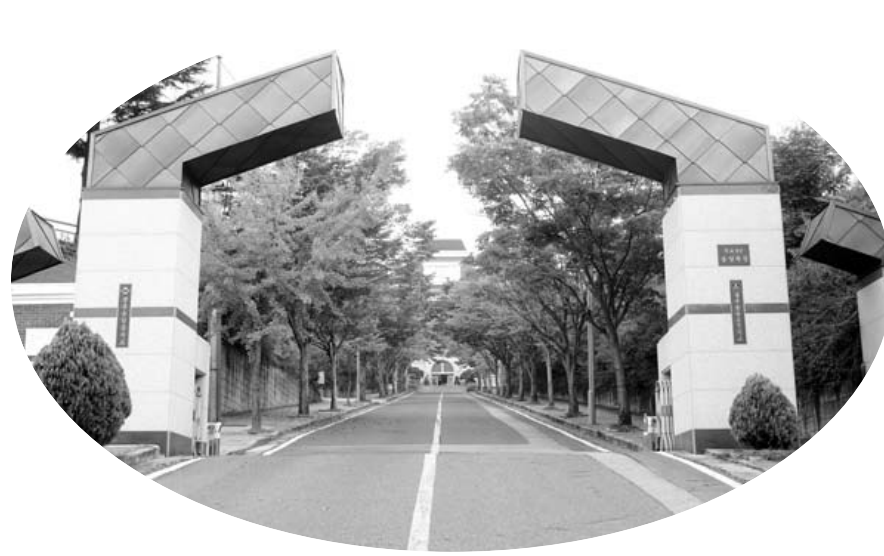
학생들은 '봉사체험의 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랑, 섬김,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송일인'의 자긍심을 키워나간다.

또한 송일고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년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 금연 선포식'과 함께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는 행사에서 남녀 대표 학생들은 평생 금연 결의문을 낭독하며 평생 흡연하지 않고,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한다.

2013년부터 흡연예방교육선도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힘쓰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내 금연 자율 동아리 활동(S.T.S, Sooinng-il, Stop, Somorking)을 통해 자율적인 금연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

송일고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가 미래를 예측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박 2일의 교직원 워크숍과 수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부나 시교육청의



송일학원이 운영하는 송일고, 송일중에 들어서는 교문은 명문 인재의 요람이라는 '송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다.

1900년대초 美 유진벨 목사 설립...114년 전통 최근 5년간 서울 유명대 진학률 호남 최상위권 인성·전인 교육 통해 미래 선도하는 인재 육성

각종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송일고는 2004년 e-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돼 공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간·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개별 학생의 흥미·적성·요구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e-러닝 학습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구축,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해 현재 원격수업을 위한

기틀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

교육부 지정 고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로 운영(2010-2014년)도 송일고의 강점이다.

2010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 수준부터 특목과 및 대학 수준의 심화과목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목과 폭넓은 선택과목 수강 기회를 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학교로 교육부에서 선정됐다.

특히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영어·수학

교과의 경우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개설 함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적 수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송일고는 2020년부터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에 선정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송일고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송일고는 학생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인교육 시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먼저 교과특성화학교(국제 정치 경제 융합)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 정치 경제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및 학교 만족도를 높이며 국제 정치 경제 교과 중점과정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식 및 분석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송일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고급 물리학, 과학

과제연구, 국제경제, 사회과제연구, 체육진로탐구, 스페인어1, 아랍어1을, 2021학년도에는 고급 물리학, 국제 정치, 스페인어 화해1 과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올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한 교사들은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환경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하는데 최적화돼 있다'고 전한다.

특히 송일고는 학생주도탐구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정하고 자신의 적성,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강점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와 진로에 맞춰 학문에 대한 열정,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자율동아리, 교과동아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진학지도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송일고는 수시로 변하는 대입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학군별 교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대입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입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

정혜송 교장은 "광주송일고의 뛰어난 진학 성과의 밑바탕에는 교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탐구, 발표, 토론 등의 활동을 한다. 교사는 이를 관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객관적, 사실적으로 기록해 각 대학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임채만 기자



각계각층 지도자를 배출한 송일고 교정에서 교문으로 내려가는 통행로.

김준곤 목사·임권택 감독·정윤성 작곡가 등 각계 이름 떨쳐

자랑스러운 동문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송일고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지도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중에서도 미션스쿨인 송일고의 가

장 큰 자랑 중 하나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을 배출해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상징과도 같은 김준곤 목사, 개혁신학의 거두인 서철원 교수, 광신대학교 정규남 총장, 호남신학대 황승룡 전 총장 등 기독교계에 명성을 떨치는 지도자들도 적지 않다.

정·관계와 법조계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 장군은 자신의 모든 공적사항과 기념이 된 물품들을 모교에 기증한 바 있다. 학교에서도 이를 후배들의 귀감으로 삼도록 본관에 전시관을 개설해 놔다.

또한 최근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한 최관호 치안장관 포함해 많은 동문들이 정·관계에서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계에는 '서편제' 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영화감독 임권택, '그 섬에 가고 싶다' 등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 임철우, 민중 격동기의 작곡가로 중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정윤성, 화가 한희원 등이 있으며, 스포츠계에는 탁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택수 등이 있다.

/정혜선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국 222-8171 산수지국 224-4188 학운지국 673-6836 화정지국 372-9140 금호지국 376-7153 동암지국 603-0311 노대지국 674-3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무지국 453-2554 광천지국 374-2120 진월지국 676-2726 봉선지국 673-6836 백운지국 673-0123 두암지국 266-1920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가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하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지사 061270-6889 동북포지사 061278-0740 남목포지사 061245-3797 신안지사 061980-6300 순천지사 061746-1600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시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구례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8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보성지사 061852-6644 화순지사 061373-7795 장흥지사 061863-6800 강진지사 061432-8699 해남지사 061535-5849 영양지사 061473-7151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